

〈조사개요〉

1. 조사명

- 부산지역 기업의 2023년 ESG 등급 현황 분석

2. 조사목적

- 지역기업 ESG 경영현황 파악
- ESG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생성

3. 분석방법 및 대상

- 한국ESG기준원의 ESG 경영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 * 분석대상: ESG등급 발표 기업 총 39개사(코스피 35개사, 코스닥 4개사)

4. 조사내용

- 부산지역 기업 ESG 등급 현황 분석
- 타시도와의 비교

〈참고자료-ESG 평가대상 및 등급 개요〉

○ ESG 평가대상 기준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
- 코스닥 상장사 중 영향이 큰 기업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 : 한국거래소 주요 지수 구성종목(코스닥 150, 코스닥글로벌 세그먼트 등)
 - : 주요 금융업종(금융지주,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업 등)
- 그 외 ESG기준위원회에서 평가 및 등급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상장사, 거래중지 기업 등은 제외

○ ESG 등급

S	A+	A	B+	B	C	D
탁월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취약	매우 취약

* 자료: 한국ESG기준원

1. ESG 피평가 기업 현황

-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를 받은 기업체수 비중은 서울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 22.3%, 경남 4.8%, 부산 4.0%, 충남 3.4%, 인천 3.1% 등 순
- 이는 한국ESG기준원의 평가대상이 주로 코스피 상장사와 영향이 큰 코스닥 상장사 등으로 구성돼 있어 서울, 경기권에 집중됨

< 2023년 ESG 피평가 기업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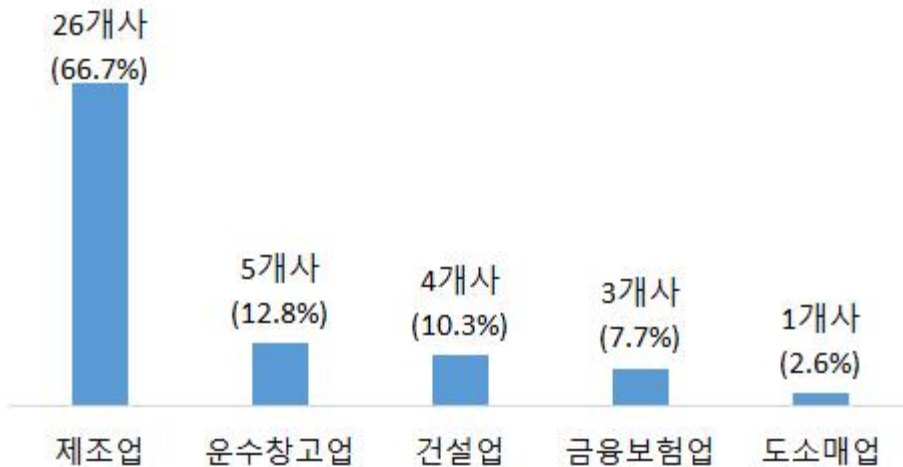
시도	피평가 기업체수				
	코스피	코스닥	외감	계	%
서울	387	63	2	452	45.8
경기	156	63	1	220	22.3
경남	44	3	0	47	4.8
부산	35	4	0	39	4.0
충남	25	9	0	34	3.4
인천	26	5	0	31	3.1
충북	16	15	0	31	3.1
대구	21	5	0	26	2.6
경북	20	6	0	26	2.6
울산	17	1	0	18	1.8
전북	12	4	0	16	1.6
대전	8	5	0	13	1.3
광주	8	0	1	9	0.9
전남	7	1	0	8	0.8
강원	4	3	0	7	0.7
세종	3	3	0	6	0.6
제주	4	0	0	4	0.4
계	793	190	4	987	100.0

* 주: ESG등급 발표 기업 총 987개사(코스피 793개사, 코스닥 190개사, 외감 4개사)

* 자료: 한국ESG기준원(KCGS)

- ESG 평가를 받은 부산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운수창고업 12.8%, 건설업 10.3%, 금융보험업 7.7%, 도소매업 2.6% 등 순

부산지역 ESG 피평가 기업 업종 현황



*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로 정리

* 자료: 한국ESG기준원(KCGS), 나이스신용평가

2. 부산지역 기업 ESG 등급 현황

- 부산기업의 2023년 ESG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A등급을 받은 기업은 3개사(7.7%), B+등급 6개사(15.4%), B등급 1개사(2.6%), C등급 15개사(38.5%), D등급 14개사(35.9%)임
 - 우수수준인 A등급은 BNK금융지주, 동성케미컬, 동일고무벨트
 - 양호수준인 B+등급은 DRB동일, HJ중공업, 강남제비스코, 세방, 화승엔터프라이즈, 화승인더스트리
- 부산기업의 2023년 ESG 등급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됨
 - 양호/우수한 수준을 나타내는 B+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체수 비중은 23.1%로 전년대비 15.6%p 증가한 반면, 취약한 수준을 나타내는 C이하 등급 비중은 전년대비 14.4%p 감소함
 - 대내외적으로 ESG경영이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기업 자구책 마련과 각종 ESG 지원정책 강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피평가기업의 74.4%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하위권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 제고에 대한 과제 존재

< 부산기업 2023년 ESG 등급 현황 >

등급	2023년		2022년		전년대비 비중 증감
	개사	%	개사	%	
S	-		-		
A+	-		-		
A	3	7.7	1	2.5	↑ 5.2%p
B+	6	15.4	2	5.0	↑ 10.4%p
B	1	2.6	2	5.0	↓ 2.4%p
C	15	38.5	15	37.5	↑ 1.5%p
D	14	35.9	20	50.0	↓ 15.9%p
계	39	100.0	40	100.0	

* 자료: 한국ESG기준원(KCGS)

○ 2023년 ESG 등급이 전년대비 상승한 기업은 15개사

- 국제 기구 및 협약 가입, ESG전담조직 구성, ESG위원회 설치, 탄소저감활동, 성과공개 등 선제적으로 ESG경영체계 도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한 기업들에서 주로 개선된 모습을 보임
- 특히 2단계 이상 상승한 기업은 동일고무벨트, DRB동일, 강남제비스코, 세방, 화승인더스트리 등 총 5개사

< 부산기업 2023년 ESG 등급 상승현황 >

상승(15개사)		
업체명	2023	2022
동성케미컬	▲A	B+
동일고무벨트	▲A	B
DRB동일	▲B+	C
HJ중공업	▲B+	B
강남제비스코	▲B+	C
세방	▲B+	C
화승인더스트리	▲B+	C
화승코퍼레이션	▲B	C
고려제강	▲C	D
대한제강	▲C	D
부산주공	▲C	D
에어부산	▲C	D
엔케이	▲C	D
진양홀딩스	▲C	D
한성기업	▲C	D

* 자료: 한국ESG기준원(KCGS)

○ 부문별로도 전반적으로 등급이 상향된 모습을 보임. 그 중 환경(E)부문에서의 개선 폭이 큰 편

- 2023 환경부문 B+등급 이상 비중은 전년대비 13.0%p 증가, C 등급 이하 비중 18.2%p 감소, 사회부문은 각각 10.5%p 증가, 15.9%p 감소, 지배구조부문은 각각 13.3%p 증가, 4.0%p 증가
- 이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후 공시 및 환경경영 정보 공개 요구 등 증가로 기업 대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
- 기업 활동을 살펴보면 환경부문 A+를 달성한 동성케미칼은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한 203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탄소배출 10% 감축(2020년 대비)을 목표로 매년 탄소저감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A를 받은 BNK금융지주의 경우 친환경사업 금융지원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A를 받은 동일고무벨트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기술 도입 등을 통해 생산단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공개하고 있음
- * 다만 환경부문의 C등급 이하 취약비중은 74.4%로 타부문(사회부문 64.1%, 지배구조부문 59.0%) 대비 가장 높은 편. 이는 피평가기업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이 주요 원인이며, 환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부산기업 2023년 ESG 부문별 등급 현황 >

등급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개사	%	개사	%	개사	%	개사	%	개사	%	개사	%
S	-	-	-	-	-	-	-	-	-	-	-	-
A+	1	2.6	-	-	2	5.1	-	-	-	-	-	-
A	2	5.1	1	2.5	2	5.1	2	5.0	1	2.6	2	5.0
B+	4	10.3	1	2.5	5	12.8	3	7.5	11	28.2	5	12.5
B	3	7.7	1	2.5	5	12.8	3	7.5	4	10.3	11	27.5
C	19	48.7	13	32.5	11	28.2	13	32.5	8	20.5	5	12.5
D	10	25.6	24	60.0	14	35.9	19	47.5	15	38.5	17	42.5
계	39	100.0	40	100.0	39	100.0	40	100.0	39	100.0	40	100.0

* 자료: 한국ESG기준원(KCGS)

3. 타시도와의 비교

- 부산의 ESG경영 수준은 타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은 피평가기업 중 양호,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는 B+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 비중이 23.1%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에 그침
 - 이는 전체 평균 37.5%에도 못 미치고 있음
- 반면 취약한 수준을 나타내는 C이하 등급의 비중은 74.4%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편
 - 이는 전체 평균 54.9%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최하위권에 있는 대구, 울산, 부산, 인천, 충남 등 5개 지역을 부문별로 분석해보면 대구/부산은 환경(E), 사회(S) 부문, 충남/인천은 지배구조(G) 부문, 울산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지역별 ESG 등급구간별 비중 현황 >

순위	지역	양호,우수 (B+이상)	순위	지역	보통 (B)	순위	지역	취약 (C이하)
전체 평균 37.5%			전체 평균 7.6%			전체 평균 54.9%		
1	제주	75.0%	1	강원	28.6%	1	대구	84.6%
2	세종	50.0%	2	세종	16.7%	2	울산	77.8%
3	서울	47.6%	3	전남	12.5%	3	부산	74.4%
4	경북	42.3%	4	경남	10.6%	4	인천	74.2%
5	대전	38.5%	5	인천	9.7%	5	충남	73.5%
6	광주	33.3%	6	경기	8.6%	6	전북	68.8%
7	경기	32.7%	7	대전	7.7%	7	광주	66.7%
8	충북	32.3%	8	경북	7.7%	8	경남	63.8%
9	강원	28.6%	9	서울	7.5%	9	전남	62.5%
10	경남	25.5%	10	충북	6.5%	10	충북	61.3%
11	전남	25.0%	11	전북	6.3%	11	경기	58.6%
12	전북	25.0%	12	충남	5.9%	12	대전	53.8%
13	부산	23.1%	13	대구	3.8%	13	경북	50.0%
14	울산	22.2%	14	부산	2.6%	14	서울	44.9%
15	충남	20.6%	15	울산	0.0%	15	강원	42.9%
16	인천	16.1%	16	광주	0.0%	16	세종	33.3%
17	대구	11.5%	17	제주	0.0%	17	제주	25.0%

* 주: 지역별 등급구간범위 내 기업체수 ÷ 지역별 피평가 총기업체수 × 100

* 자료: 한국ESG기준원(KCGS)

첨부

부산지역 기업의 2022년 ESG 등급 현황 (등급 상위순)

순번	기업명	ESG통합등급		환경(E)등급		사회(S)등급		지배구조(G)등급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1	BNK금융지주	A	A	A	A	A+	A	A	A
2	동성케미칼	▲A	B+	A+	B+	A+	A	B+	B
3	동일고무벨트	▲A	B	A	C	A	B+	B+	B
4	DRB동일	▲B+	C	B	D	A	B+	B+	B
5	HJ중공업	▲B+	B	B	C	B+	B+	B+	B+
6	강남제비스코	▲B+	C	B+	C	B+	B	B+	B
7	세방	▲B+	C	B+	C	B+	C	B	B
8	화승엔터프라이즈	B+	B+	B+	B	B+	B	B+	A
9	화승인더스트리	▲B+	C	B+	C	B+	C	B+	B+
10	화승코퍼레이션	▲B	C	C	C	B	C	B+	B
11	SNT모티브	C	C	C	C	C	D	C	B
12	고려제강	▲C	D	C	C	B	C	D	D
13	금강공업	C	C	C	D	D	D	B	B
14	대한제강	▲C	D	C	D	C	D	C	C
15	리노공업	C	C	C	D	D	D	B	B+
16	만호제강	C	C	C	D	C	C	B+	B+
17	부산주공	▲C	D	C	D	C	D	C	D
18	에어부산	▲C	D	C	C	B	C	D	D
19	엔케이	▲C	D	D	D	C	D	C	D
20	엘에스마린솔루션	C	C	C	D	C	D	B+	B+
21	인터지스	C	C	C	C	C	B	C	C
22	조광페인트	C	C	C	C	B	C	C	C
23	진양홀딩스	▲C	D	D	D	D	D	B	D
24	한국셀석유	C	C	C	C	C	C	B+	B
25	한성기업	▲C	D	B	D	B	D	D	D
26	DSR	D	D	C	D	C	C	D	D
27	고려산업	D	D	D	D	D	D	C	D
28	국보	D	D	C	D	D	D	D	D
29	금양	D	D	D	D	D	D	D	C
30	동아지질	D	D	D	D	D	D	D	D
31	미창석유공업	▼D	C	C	D	D	D	D	B
32	바이넥스	D	D	D	D	D	D	D	D
33	범양건영	D	D	D	D	C	C	D	D
34	부산산업	▼D	C	C	D	D	D	D	B
35	성우하이텍	D	D	D	D	C	C	D	D
36	성창기업지주	D	D	D	D	D	D	C	D
37	천일고속	D	D	C	D	D	D	D	D
38	한국주철관공업	D	D	C	C	D	C	D	D
39	한창	D	D	D	D	D	D	D	D

주 : 부산기업(39개사)은 코스피 상장사(35개사), 코스닥 상장사(4개사-리노공업, 성우하이텍, 바이넥스, 엘에스마린솔루션)

출처 : 한국ESG기준원(KCGS)